

수소 · UAM · 우주산업 관련 주간정책 동향

□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수소	중앙	□ 내년도 보조금 예산 희비 전기차 줄고 수소차 늘고(2024.10.24) - 2025년 환경부 예산안에서 전기차 보조금은 감소하고 수소차 보조금은 증가. 전기차는 보급 확대에 따른 예산 효율화를 목표로 지원 금액 축소 - 수소차 보급 예산은 수소차 신차 출시를 앞두고 증가하여, 수소승용차와 수소버스 보급 목표 상향 조정. 정부는 전기차 지원을 줄이고 수소차에 중점 둘 계획 -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축소를 차종별로 진행하며, 안전 기능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 도입 - 수소차는 보급 목표 확대와 함께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불용액 문제 해결 방안 모색
	수소	□ 창원시의회, ‘액화수소플랜트’ 행정사무조사 시작(2024.10.24) - 창원특례시의회가 전임 시장이 추진한 ‘액화수소플랜트’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착수. 제1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관련 조사 계획서 승인 - 이번 조사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참여하여 민주당 소속 의원 없이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활동 시작 - 액화수소플랜트는 국내 최초의 상용 생산 기지로, 두산에너지빌리티 창원 공장에서 운영. 수요처 발굴 및 가동률 저하 문제로 인한 상업 생산 지연 우려 - 행정사무조사는 창원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경위, 예산 집행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, 활동 기간은 12월 20일까지로 예정
	지방	□ 부산시·교육청, 수소 통학버스·항공고 운영 지원 논의(2024.10.24) - 부산시와 교육청은 수소 통학버스 도입 및 항공고 운영 지원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교육행정협의회 개최. 박형준 시장과 하윤수 교육감이 참석하여 현안 논의 -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을 위한 수소 통학버스 조기 도입을 제안하고, 부산항공고 운영을 위한 지산학 연계 방안 마련. 교육특구로서 지역 교육 현안 개선에 촉진 - 시는 또한 2025년도 교육 예산과 관련된 법정전입금 편성에 대한 협의 진행하며, 교육청과 협력 체계 강화 의지 표명 - 이번 협의회는 부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시와 교육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□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, 국내 최초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 실증 사업장 준공(2024.10.24) - 충청도와 중기부가 충주메가폴리스산단에 국내 최초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실증사업장 준공. 이번 준공은 탄소중립과 청정수소 경제 실현 목표 - 암모니아는 수소 함량이 높고 쉽게 액화되어 대량 운송 및 저장 가능하여 수소 생산의 새로운 원료로 주목.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 기준 마련 시도 -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도 함께 실증되며, 규제 완화를 통해 청정수소 생산 생태계 확대 전망 -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원 도입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이루어지길 기대
		□ 완주 수소산업 위해 최고 기관 모두 뭉쳤다(2024.10.24) - 완주군이 수소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업무협약 체결하여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가속화 - 협약을 통해 기업 유치와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, 다양한 정책 자금 및 기업 성장 프로그램 마련 예정. 수소 전용 기업의 선정 및 육성도 주요 과제로 추진 계획 - 완주군은 국가 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며, 지역 수소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목표 -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수소 안전 검사, 연구개발, 정책 발굴 등 각 분야에서 협력 지속 계획
		□ 완주군,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서 수소 산업 부스 인기몰이(2024.10.24) - 완주군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수소 산업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큰 관심 모음. 재외동포 기업인들이 완주군 수소 기업과 산업 견학 진행 - 완주군의 홍보 부스에서는 수소 연료탱크와 연료전지 등이 전시되어 많은 방문객들이 흥미 보임. 주요 재외동포 CEO들도 방문하여 홍보 효과 확대 - 완주군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수출 및 판로 개척을 활성화하고, 재외동포들과의 교류 지속 계획 - 행사에서는 완주 지역 특산품 직거래 장터도 함께 운영하여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
UAM	중앙	□ 박상우 국토장관의 'K-UAM' 세일즈...카자흐 교통장관 면담(2024.10.30) -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카자흐스탄 교통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UAM 정책 논의 및 K-UAM 관련 협력 방안 논의 - K-UAM 그랜드챌린지와 맞춤형 도심항공교통법 제정을 통해 한국의 UAM 청사진 제시 - 박 장관은 카자흐스탄 내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며 국가 차원의 협력 필요성 강조 - 이번 만남은 양국 간 경제·기술 협력 강화 계기 될 것으로 기대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지방	□ 테슬라, SF영화서나 불법한 '사이버트릭' 국내 첫선...UAM 특별관엔 기체 탑승 체험하려는 관람객 긴 줄(2024.10.24) - 테슬라가 대구 모빌리티 엑스포에서 사이버트릭을 국내에 처음 공개하며 큰 관심 모음. 현대차, 기아차도 수소 및 전기차를 전시하며 경쟁력 강화 - UAM 특별관에서는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사의 UAM 기체 S4를 직접 탑승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. 비행 시뮬레이션 체험도 제공하여 방문객들로부터 호응 - 토프 모빌리티의 전기비행기와 삼성SDI 등 배터리 기업들이 최신 제품 선보이며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 증가 - 대구국제로봇산업전도 함께 열려 자율주행 및 로봇 산업의 다양한 기술 공개 □ '세계 최초 UAM 통합운용 실증 성공' K-UAM 원팀 인천에 뜬다(2024.10.25) - 인천시가 10월 31일부터 K-UAM CONFEX에서 UAM 통합운용 실증 성과 선보이며 특별전시 개최. UAM 통합운용 실증은 세계 최초로 성공 - 이번 전시에서는 인천공항 버티포트 및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항공 모빌리티 기체 소개. KT, 대한항공 등도 UAM 교통관제 시스템과 통제 기술 공개 - K-UAM 원팀은 인천에서 실증비행 준비 중이며, 이번 전시를 통해 국내 UAM 기술 현황 확인 가능 - 전시는 동북아 허브도시 인천을 중심으로 UAM 스마트도시의 청사진 제시하여 산업 활성화 목표로 설정 □ "제주UAM 상용화 최선"(2024.10.28) - 제주도가 ‘고양 드론·도심항공모빌리티 박람회’에서 제주형 UAM의 미래 청사진 소개하고 관광형 UAM 상용화 계획 발표 - 내년 UAM 시범 운용 구역 지정을 목표로 버티포트 건설 계획 수립 중이며, 국토교통부와 협력 - 제주도는 관광 산업과 UAM 결합하여 도심항공교통을 통해 관광 활성화 도모 - 도는 이번 박람회를 시작으로 관련 기관과의 협력 관계 강화하여 제주형 UAM 상용화 계획 □ 김포시 '도심항공교통'(UAM) 선도...미래모빌리티 엑스포 참가(2024.10.28) - 김포시가 미래모빌리티 엑스포에 참가해 도심항공교통(UAM) 개발 계획과 사업 비전 발표. 김포는 UAM 상용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 추진 - 지난 7월 버티포트 적합지와 안전 항로 분석 완료하고, UAM 상용화를 위한 준비 지속 - 이번 엑스포에서는 교통 수요와 안전성, 김포시의 콤팩트시티와 혁신 복합단지를 기반으로 UAM 개발 방향 제시 - 김포시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협력하며 UAM 상용화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네트워킹 강화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□ “미래 도심항공교통을 한눈에” …K-UAM Confex 31일 개막(2024.10.27) - 제4회 K-UAM Confex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10월 31일부터 열리며, 도심항공교통(UAM)의 최신 기술과 미래 발전 방향 선보일 예정 - 특별전시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현대차 등이 참여하여, 공항 셔틀 서비스와 UAM 기반 미래도시 모델 소개. 다양한 시나리오를 성공적으로 실증한 K-UAM 원팀도 참가 - 인천공항공사는 버티포트 청사진을, 현대건설은 모빌리티 허브 모델을 전시하여 UAM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 조망 - 일본과 퀘벡의 UAM 사례, 허브공항 발전 전략 등이 논의되며 인천의 글로벌 UAM 선도도시로서의 입지 확고히 할 계획
		□ 고양시, 도심항공교통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협약 체결(2024.10.25) - 고양특례시가 대한항공, LIG넥스원, 포스코, 한국항공대학교와 UAM 신기술 연구개발 위한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하는 업무협약 체결 - 각 기관은 고양시의 UAM 산업 육성과 신기술 클러스터 형성을 목표로 다양한 테스트베드와 연구용역 진행. 대한항공은 도심 운용 시스템 개발, LIG넥스원은 UAM 첨단 기술 확보, 포스코는 버티포트 건설 기술 개발 담당 - 협약을 통해 고양시는 UAM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며, 각 기관은 실증 연구와 UAM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적 협력 관계 강화 계획 -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이 미래 이동 수단 혁신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협력 의지 표명
우주	중앙	□ 최형두 "우주시대 이끌어갈 전문인력 체계적 육성해야"(2024.10.24) - 국회의원 최형두는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, 체계적 육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 - 우주산업의 고도화와 관련해 창의적이고 기술적으로 숙련된 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언급 - 최 의원은 교육 체계와 프로그램을 재정비해 인재 발굴과 훈련 강화 필요성 제언 -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및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 도모 필요
		□ “우주청 산업발전 전략, 내년 상반기 발표” (2024.10.25) - 우주항공청이 개청 이후 지속적인 산학연 간담회를 통해 산업발전 전략 논의 중이며,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산업정책 발표 계획 - 이번 전략은 우주항공 산업에 필요한 투자 및 금융, 법 제도, 인력 양성, 연구개발 등 다섯 개 분야 중심으로 정책 수립 예정 - 우주항공청은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해 워킹그룹 조직하고, 업계 의견을 반영한 정책 구성 추진 - 정부는 우주산업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약속하며, 지역 경제와 기술 발전에 기여할 방안 모색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□ “한국판 스페이스X 키운다” ..우주청, ‘재사용발사체 개발 본격화(2024.10.29) - 우주항공청이 내년부터 재사용발사체 개발 본격화하며,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 통해 ‘한국판 스페이스X’ 목표 설정 - 이번 재사용발사체 개발은 메탄 추진제 기반 엔진을 중심으로 3년간 진행되며, 주요 민간기업들과 협력하여 기술 선행 연구 추진 예정 - 이번 사업을 통해 우주 탐사 및 인공위성 발사 비용 획기적 절감과 우주 산업의 경쟁력 제고 계획 - 재사용발사체 기술은 2030년대 글로벌 우주산업의 핵심 요소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
		□ 우주항공청, NASA와 아르테미스 연구협약 체결(2024.10.30) - 한국 우주항공청이 NASA와 아르테미스 연구협약 체결하며 달 탐사와 심우주 탐사 협력 강화 - 이번 협약을 통해 달 착륙선 개발과 우주인 지원 도구, 우주 의료 분야에서 공동 연구 진행 계획 - 한국은 세계 10번째로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한 국가로,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우주 탐사 역량 확장 - 우주항공청은 협력을 통해 우주 탐사의 새로운 기술과 안전성 강화 방침
		□ 과기정통부-우주항공청,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(2024.10.30)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 위해 협력 체계 강화 - 저궤도 위성통신은 미래의 데이터 전송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으며, 안정적인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 구축 목표 - 이번 협력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 가속화 예정 - 이 사업은 국가 주도로 진행되며, 2030년까지 실질적인 통신망 구축 목표
	지방	□ 하동군-GFEZ 하동사무소, 제1회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공동참가(2024.10.24) - 하동군과 GFEZ 하동사무소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‘제1회 국제우주항공 기술대전’에 공동 참가하여 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동 진행 - 경남도와 창원시,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약 250개 기업이 참가, 우주·항공·방산 분야에서 다양한 전시 진행 - 하동군은 갈사와 대송산업단지를 포함한 하동지구의 투자 인센티브와 입지 장점을 홍보하며 입주기업 발굴 추진 - 이번 대전을 통해 하동지구의 우주항공산업 발전 가능성 알리고 기업과의 네트워크 강화 기대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□ 사천시, 2024 대한민국 우주항공방위산업 수출상담회 개최(2024.10.24) - 사천시는 사천에어쇼 행사장에서 ‘2024 대한민국 우주항공방위산업 수출상담회’ 개최하여 국내 항공부품 기업과 글로벌 바이어 간 B2B 수출 상담 기회 제공 - 에어버스, GE Aerospace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해 기업미팅, 홍보부스 운영, 비즈니스 라운지 통해 기업 간 네트워킹 도모 - 사천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우주항공 관련 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에 실질적 기여 목표로 설정 - 사천시는 지속적으로 지역 우주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해 다양한 지원 강화 계획
		□ 경남투자청, 우주항공기업 투자유치 본격화(2024.10.24) - 경남투자청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‘제1회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’에 참가해 경남의 투자환경 홍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의 투자 유치 적극 추진 - 행사에 참가한 주요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 상담 통해 우주항공 분야의 투자 유치 추진 - 명사초청 세미나를 통해 경남의 우주항공산업 관련 인프라와 지원 제도 소개하고 잠재 투자자와의 네트워크 강화 - 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은 경남이 우주항공산업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 높은 지역임을 강조
		□ GFEZ 하동사무소, ‘국제우주항공 기술대전’ 참가해 투자유치 박차(2024.10.24) -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우주항공 기술대전에 참가해 하동지구의 투자 여건 홍보하고 기업 유치 위해 노력 - 기술대전에는 우주, 항공, 방산 분야 250여 개 기업이 참여하며 500개 부스 운영 - 하동사무소는 홍보부스를 통해 하동지구의 개발 현황과 투자 인센티브 알리며, 입주 기업 대상 투자 상담 추진 - 관계자는 이번 기술대전이 하동지구의 잠재력을 알리는 기회 될 것이라 강조
		□ 대구 달서구에 천문·우주 분야 '별빛천체과학관' 건립 박차(2024.10.24) - 대구 달서구가 별빛천체과학관 건립 추진하며 천문·우주 관련 교육과 체험의 장 마련 - 과학관은 전시실, 천체관측실 등을 갖추고 2026년 완공 목표로 하며, 다양한 우주 관련 콘텐츠 제공 계획 - 이번 과학관 건립은 대구 내 과학문화시설의 지역 분포 균형 개선 기대 - 지역 청소년들에게 우주와 천체에 대한 꿈과 상상 심어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전망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□ 양산시, '우주항공·방산용 실란트 사업' 기관·기업체 협약으로 날개 달아 (2024.10.24) - 양산시는 우주항공·방산용 실란트 소재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 사업 추진하며, 관계기관과 기업체 협약 체결 - 실란트 소재는 극한 환경에서 내구성과 안정성 보장하는 중요한 소재로, 우주항공과 방산 분야에 필수적 역할 수행 - 양산시는 5년간 344억 원 투입해 시험 인증 센터 설립하고 국내 생산 기반 강화 예정 - 이번 협약을 통해 실란트의 국산화 추진해 경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기대
		□ 전량 수입 '우주항공·방산용 실란트'...초격차 기술개발 산학연 '맞손'(2024.10.24) - 경상남도가 우주항공·방산용 실란트 소재 국산화를 위해 산학연 협력 통해 기술 개발 및 인증 체계 구축 - 실란트는 항공기와 방산 산업에서 핵심 소재로 활용되며, 극한 환경에서도 성능 유지 가능하여 중요한 기술로 주목 - 국산화 사업은 5년간 344억 원 투입되며, 국내 제조 역량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계획 - 도 관계자는 초격차 기술 개발 통해 경남의 산업 성장 견인 의지 표명
		□ 제주의 우주산업..."지역인재 양성의 산실"(2024.10.29) - 제주지역 우주산업 업체들이 지역 인재를 적극 채용하며 신성장 산업의 동력으로 주목 - 국가위성운영센터는 지난해 개소 이후 88명의 인력 채용했으며, 이 중 약 64%를 제주 지역 인재로 채용 - 제주도는 우주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한림공업고등학교와 제주대학교 통해 체계적 교육과정 운영

□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수소	국가기관	□ GIST-KITECH, 수소 에너지 기술교류회 성황리 개최(2024.10.24) - 광주과학기술원(GIST)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(KITECH)이 수소 에너지 기술 교류회 개최하여 관련 기술 동향과 협력 방안 논의 - 행사에는 학계와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수소 에너지 정책과 투자 유치 방안 발표하며 큰 호응 얻음. 지자체도 정책 방향 공유하며 수소 산업 육성 의지 표명 - 이날 행사에서는 GIST와 KITECH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연구 발표가 이어졌고, 참석자들은 첨단 기술 견학 통해 수소 산업의 미래 가능성 확인 -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 유치 및 지역 내 수소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계획
	지방기관	- (해당 없음)
UAM	국가기관	□ [오늘의 DT인] "UAM發 제조·부동산 시장 활기 기대… 공공수요·인증 마중물 필요"(2024.10.24) - 유창경 항공우주산학융합원장은 UAM 산업의 성장이 제조업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전망하며 공공 수요와 인증 시스템의 중요성 강조 - 산학융합원은 UAM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지구 내 실험실습 시설 확충하고, MRO 사업 강화 예정 - 정부의 인증 체계 마련과 공공 수요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며, 드론 산업과 UAM 상용화를 위한 대책 요구 - 유 원장은 인천지역 산학융합지구에서 지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 교통 산업 육성 계획
	지방기관	□ 경남TP·고성군, 지역 드론·UAM 기술 전국에 알린다(2024.10.24) - 경남테크노파크와 고성군이 '2024 고양 드론·도심항공모빌리티 박람회'에 참여하여 경남의 드론 및 UAM 관련 기술 소개 -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와 미래항공기체(AAV) 시제기 개발 사업 등 경남 지역의 주요 항공 프로젝트 전시. 무인기종합타운 조성으로 드론 개발과 시험 활동 지원 - 드론 개발과 비행시험이 가능한 무인기종합타운을 기반으로, 경남TP는 성능 검증 및 시험 평가 제공하며 UAM 산업 발전 기여 - 드론과 미래 항공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 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과 협력 계획
우주	국가기관	- (해당 없음)
	지방기관	- (해당 없음)

□ 민간 및 기타(포럼, 세미나, 토론회 등) 동향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수소	민간기업	□ 수소 등 신규 에너지 사업에 역량 집중(2024.10.24) - 에쓰-오일의 대표가 2024 대한민국 CEO 명예의전당 산업 부문에서 5년 연속 수상. 회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에너지 혁신을 위한 장기 로드맵 실행 - 9조 원 규모의 ‘샤힌 프로젝트’로 석유화학 사업 확장하여 2026년에는 사업 비중 두 배 이상 증가 예정.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서의 입지 공고 - ESG 경영 강화를 위해 탄소 감축 로드맵과 ISO 환경 인증 획득, 지속 가능한 항공유 생산하여 글로벌 ESG 평가에서 좋은 성과 기록 - 에쓰-오일은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에서 14년 연속 아시아 정유사 중 유일하게 포함되며, ESG 최고 등급 기록
		□ JB주식회사, 가스안전공사와 수소안전교육 인력양성 협약(2024.10.24) - JB주식회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이 수소 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업무 협약 체결. 두 기관은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계획 - 현장 우선형 안전 콘텐츠 개발과 수소 가스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교육과 교류 프로그램 추진. 이는 에너지 안전성과 관련 산업 발전 기여 전망 - JB는 수소 안전 교육의 질 높이고 국민의 안전 강화에 주력할 계획 - 이번 협력은 수소 분야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 지속적 양성 토대 마련 기대
		□ 원익머트리얼즈 충주사업장 준공, 하루 500kg 그린수소 생산 가능(2024.10.24) - 원익머트리얼즈가 충주사업장 준공하여 하루 500kg의 그린수소 생산 시설 갖추고, 중기부 및 충청북도 관계자 준공식 참석 -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위한 기술 기준 부재 상황에서, 규제자유특구 지정된 충주에서 실증사업 통해 관련 기준 마련 목표 - 충주사업장은 향후 수소 배관망 통해 인근 충전소와 수요처 공급 예정으로, 국내 수소 산업 상용화 기여 전망 - 충주시장은 원익머트리얼즈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 기대하며 행정적 지원 강조
		□ 같이 가면 멀리 간다… 롯데케미칼, SK합작 수소 발전 ‘착착’ (2024.10.24) - 롯데케미칼이 SK가스와 합작하여 수소 발전소 구축 추진 중. 울산 공장에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해 2026년부터 본격 운영 계획 - 롯데케미칼은 향후 청정수소 도입해 설비 전환 가능하도록 발전소 구성 예정. 이를 통해 수소 사업 강화하며 2030년까지 관련 매출 4조 원 확대 목표로 설정 - 회사는 올해 울산시와 협력하여 수소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위한 협약 체결, 수소 경제 활성화 노력 지속 - 롯데정밀화학은 암모니아 도입에도 투자하고, 일본 제라와의 협력 통해 청정 암모니아 유통 인프라 구축 계획
	대학교	- (해당 없음)
	해외	- (해당 없음)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기타	- (해당 없음)
UAM	민간기업	□ 정부 UAM 지원 확대...건설사, 기술개발·사업권 확보 경쟁 치열(2024.10.24) - 정부가 제주도에서 UAM 시범 운용 추진하며 건설사들이 기술 개발과 사업권 확보 경쟁 강화. UAM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버티포트 건설 및 운영 모델 제시 - 현대건설과 GS건설은 각각 다양한 버티포트 설계안을 발표하며 시장 선점 목표. 현대건설은 공항, 빌딩, 복합센터형 등 UAM 모델 제안 - GS건설은 LG유플러스와 협력하여 1~2층 구조의 버티포트 모듈 설계 공개했으며, 통합 솔루션 개발로 시장 확장 계획 - 롯데건설과 한화도 정부 과제에 참여하여 버티포트 관련 연구 진행, 국내외 프로젝트와의 협력 통해 시장 진출 도모
		□ 포스코, UAM 신기술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(2024.10.25) - 포스코가 도심항공교통(UAM) 수직이착륙장 기술 개발 위해 고양특례시와 대한항공 등과 협력 체계 구축. UAM 상용화 위한 기술 협력 확대 - 포스코는 고성능 강재와 프리패브 공법을 적용하여 도심 내 적합한 수직이착륙장 개발 예정.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실증 연구도 계획 - 이번 협력에는 고양특례시와 항공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여 UAM 기술 활성화와 시범 운용구역 지정 등에 협력 - 포스코는 ‘스틸 버티포트’ 프로토타입을 전시하여, 향후 국내외 버티포트 적용 위한 협업 강화 예정
		□ GS건설,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실증 1단계 완료(2024.10.28) - GS건설과 LG유플러스가 속한 K-UAM Future Team 컨소시엄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(K-UAM)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 성공적 완료. 이 사업은 UAM 상용화 목표로 안전성 검증하는 국토부 주관 실증 프로젝트 추진 - GS건설은 버티포트 운영주관사로서 다양한 운영 시나리오 통해 버티포트 운영 시스템의 안정성과 성능 점검. 실증절차서에 따라 18개의 정상·비정상 시나리오 수행하여 상용화 가능성 검증 - GS건설은 고밀도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작동 가능한 시스템 개발해 UAM 산업 활성화와 상용화 기여 계획 - 지난 3월에는 UAM 서비스의 인프라인 버티포트 설계와 운영 모델 제시하며 리모델링형, 신축형 등 다양한 모듈형 디자인 주목
	대학교	□ 극동대 유태정 교수, 'UAM 조종사들을 위한 시계비행 절차서' 발간(2024.10.24) - 극동대 유태정 교수가 UAM 조종사들을 위한 시계비행 절차서 발간. 이는 UAM 운항에 필요한 항공 교통관제와 규정 정보 포함 - 해당 매뉴얼은 헬기장 운용과 항공안전 절차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조종사들의 안전 운항 돕는 목표로 설정 - 유 교수는 25년간의 비행 경험 토대로 항공 교통 관련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여 매뉴얼 제작 - 매뉴얼은 시계비행 규칙과 국내 주요 헬기장 정보 등을 포함하며, 항공안전 연구소 통해 출판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해외	- (해당 없음)
우주	민간기업	□ 한화·KAI, 우주산업 기술력 선보여(2024.10.24) - 한화와 KAI는 ‘제1회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(AEROTEC 2024)’에 참가해 발사체와 위성 서비스로 이어지는 우주산업 밸류체인 홍보 -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와 달 탐사선 다누리호의 추진 시스템을, 한화 시스템은 지구관측용 소형 SAR위성 전시 - 셰트랙아이는 초고해상도 관측위성 ‘스페이스아이티’를, KAI는 다양한 독자위성 플랫폼과 위성 서비스 선보이며 미래 6대 연구개발 사업 주력 - KAI 관계자는 우주 솔루션 개발 통해 항공우주 역량 강화 목표로 하며, 뉴 스페이스 시대 선도 기업 자리매김 계획
		□ 페리지 KAIST 위성 개발 참여 우주 추진 시스템사업 영역 확장(2024.10.24) - 페리지는 KAIST와 협력해 우주물체 능동제어 위성 개발에 참여하며 우주 추진 시스템 사업 확장 - 회사는 KAIST 인공위성연구소에 우주물체 회수 및 제어 위한 추력기 납품 계획 - 능동제어 기술은 위성의 궤도 조정과 수명 연장에 활용되며, 페리지는 이 분야에서 독자적 기술 역량 보유 - 회사 관계자는 통합적 추진 시스템 개발 통해 국내외 다양한 임무 기여 가능
	대학교	□ 경상국립대, 제6회 민·관·군 협력 항공우주력 발전 학술회의 개최(2024.10.27) - 경상국립대학교는 사천 에어쇼와 연계하여 항공우주 산업 발전 주제로 학술회의 개최 -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우주안보와 산업 협력 강화 방안 논의하며, 민·관·군과 산학연 협력 강조 -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우주산업의 전략적 가치와 미래 기술 논의하고, 우주 산업 발전 방향 제안 - 사천 에어쇼와 연계된 학술회의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지역 우주산업 중심 역할 강화 기대
		□ 청주대 반도체·항공우주 부트캠프 본격 가동(2024.10.29) - 청주대학교가 차세대 반도체와 항공·우주 분야 인재 양성 위해 부트캠프 운영하며 본격적 교육 추진 - 이번 부트캠프는 산업체와 협력하여 첨단산업 분야 인재를 단기 집중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, 청주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운영 계획 - 반도체와 항공·우주 분야에서 약 150억 원 지원되며, 관련 교육과정을 통해 실무와 이론 겸비한 인재 양성 - 향후 교육 이수 학생들에게는 장학금과 취업 연계 제공하여 지역 산업 성장과 고용 창출 기여 계획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□ 우주생성이론 다시 쓰나...美연구진 ‘3개짜리 블랙홀’ 첫 발견(2024.10.24) - 미국 MIT와 칼텍 연구진이 삼중성계 블랙홀을 최초로 발견하며 새로운 우주 생성 이론 제기 - 기존 초신성 폭발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삼중성계의 발견으로, 연구진은 별이 스스로 붕괴해 블랙홀이 되는 ‘직접 붕괴’ 이론 제시 - 이 발견은 블랙홀 생성과 관련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할 중요한 단서 제공 - 연구진은 이번 발견이 우주 탄생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질 것 기대
		□ 中 스타트업, 2027년 출발 우주여행 티켓 판매...가격은 3억원(2024.10.24) - 중국 스타트업 선란이 2027년 우주여행 티켓 판매 시작하며, 티켓 한 장의 가격은 약 3억 원 - 구매자는 지구와 우주의 경계인 카르만 라인을 넘나들며 무중력 체험 가능, 여행 시간은 총 12분 - 이번 여행 상품은 재활용 로켓과 유인 우주선 캡슐을 이용하며, 캡슐 내부에는 파노라마 창 마련 - 중국 상업 항공우주업체가 우주여행 시장 선도하며 급성장
	해외	□ "보잉, 스타라이너 등 우주사업 매각 추진"(2024.10.26) - 보잉은 우주사업 매각 검토 중이며, 블루 오리진과 협의를 통해 NASA 프로그램 일부 인수 가능성 제기 - 보잉의 스타라이너 프로젝트는 기술적 어려움과 지연 문제로 손실 증가 - 보잉은 재정 압박 속에서 자금 조달 위해 신주 및 채권 발행 계획. 우주사업 매각은 경영 회생 전략의 일부로 평가 - 보잉의 이번 결정은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, 737 맥스 기종 품질 논란 이후 경영 회복 위한 방안 모색
		□ 중국, 유인우주선 선저우 19호 발사...텐궁에서 임무 수행(2024.10.30) - 중국이 유인우주선 선저우 19호 발사해 텐궁 우주정거장에서 임무 수행 예정 - 이번 임무는 중국 간쑤성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, 3명의 우주 비행사 탑승 - 선저우 19호 승무원들은 선저우 18호 승무원들과 교대하여 약 6개월간 텐궁에서 임무 수행 계획 - 중국의 유인우주선 발사는 우주강국 도약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, 텐궁에서 다양한 연구와 실험 수행 예정

-끝-